

# 바라밀현장

## 해인사 수련동문회

### “수행통한 개인 성숙 봉사 활동으로 회향”

수련동문회 전완중 회장



“불교의 궁극적인 존 재목적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듯이 우리 모임도 개인 수행의 성숙을 통해 봉사활동 등 사회에 회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96년 해인사 수련대회에 참석했던 해인사수련동문회 전완중(불명 보장·51) 회장. 그는 지난 1월 동문회 회장이 된 이후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수행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번 법회에서도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4차례나 해인사를 방문한 끝에, 종정스님 친견 법회를 성사시켜 회원들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회장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7년째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의 후원자로 활동하며, 남달리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인사 수련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히 동문회도 더 커지게 되겠소. 그때를 대비해 우리 모임을 정례화 하고 조직화 하는데 보다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과 108배를 하며 수행에 푹 빠져 지내는 금련화(30·부산) 보살은 며칠 전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 여름 다녀온 해인사 수련회의 동문회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인사 수련동문회에서는 삶의



해인사 수련동문회 회원들은 9월15일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장경각까지 1시간동안 3보1배를 하며 아상(我相)이 소멸될 것을 발원했다.

### 수련 마니아 “해인사 바이러스 감염” 둘째 토요일 철야법회·3보1배 정진 참선수행과 함께 금강경공부도 병행

재충전 기회로 삼아볼 요량으로 수련대회에 참가했다가 이제는 ‘수련마니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동문회원들은 이를 두고 ‘해인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한다. 해인사 수련회를 거친 사람들의 모임인 해인사 수련동문회는 1995년 12월 창립됐다. 이제 갓 불교에 귀의한 사람부터 20~3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400여 회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신행단체에서는 1년에 기껏해야 2~3차례 수련대회를 가지는 것이 고작이지만 해인사 수련동문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철야정진을 한다.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해인사 보경당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해인심(43·구미) 보살이 다른 회원보다 먼저 나와 철야정진법회 준비에 부산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은 회원들이 해인사 보경당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오직 철야정진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다. 오후 8시 30분, 월간<해인> 편집장 원철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철야정진은 오후 11시경 시작되었다. 금강경 독경, 참선, 108배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피곤

한 기색이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법회의 하이라이트는 15일 아침 8시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시작된 3보 1배 정진이다. “신입회원 무릎 좀 까지면 어쩌나, 해보면 좋아서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에 힘입어 3보1배 정진을 감행했고, 모두 한 마음으로 사리탑에서 장경각에 이르는 3보1배 정진을 마쳤다. 퇴실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 법문을 경청했다. 법회에서 스님은 큰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부처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본성 자성을 바로 보면 문수보살도 볼 수 있고 부처도 볼 수 있습니다”

본성을 바로 보라는 큰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염마를 따라 일필결에 수련법회에 참석한 12살 이영진(진주군)을 비롯해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무척 힘들었지만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합천=박원구 기자

###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 포살법회 되살리자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 정토 회관에서 열리는 포살법회.

법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실무자들과 상근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전신 거울 앞에 선 기

본이다.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 항목 30 여가지로 구성된 계본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대로 비추주기 때문이다. 오계를 비롯 환경운동, 통일운동의 구체적 실천 내용들을 담은 계본은 포살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의 한달간 신행 활동을 조목 조목 점검한다. 일을 할 때

####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고 있는 ‘자두마을’에서는 매주 친구들과 모여 오계를 암송하고 ‘지 난주 그 내용을 떠올리며 살았는 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고 있다. 탁날한 스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자 평화운동”이라며 포살법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포살법회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포살법회를 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초기 불교 시대부터 착실히 이행되어온 참회 의식인 자자(自恣)



정토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포살법회를 열어, 자기 반성과 대중화합의 기회를 갖는다

### 초기불교부터 보름·그믐에 행한 의식 타인의 허물 감싸안은 대중화합의 장

풀지는 않았는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는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했는지’, ‘소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는지’ 등의 구체적 항목들은 지난 한달 간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만다.

포살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토회 기획실장 장도연씨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해 놓은 계본에 스스로를 자주 비추어보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수행자답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포살법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같은 포살법회는 탁날한 스님이 이끌고 있는 명성공통체 ‘자두마을’에도 살아 있다. 포살법회를 깨어있기 위한 수행법으로 활용하

와 포살(布薩)의 전통은 이제 안거 기간 중이나 몇몇 사찰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계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수계법회는 일반화된 반면, 반성과 참회를 위한 포살법회는 드물어짐에 따라 지계 정신이 흐려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놓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김관태 연구과장은 “사찰별로 포살법회가 일반화되면 불자들의 건전한 신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가 불자를 위한 포살계본 등 통일된 포살법회 형식을 잘 복원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천미희 기자

### 마음비추기

을 수가 없었다. 재갈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먹을 만한 부위를 찾아보았다. 마침내 향문을 찾아내 고는 머리를 쳐박고 파먹어 들어갔다. 어느덧 재갈은 꼬끼리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며칠이고 그 속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면 내장을 뜯어

재갈은 사방이 캄캄해졌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향문이 막혀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꼬끼리 뱃속에 갇힌 재갈은 숨이 막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큰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얼마 간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밖에 비가

물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재갈의 물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 재서야 재갈은 길이 후회를 하였고 그날 이후로 꼬끼리의 모습만 보아도 진저리를 치고는 항상 먹이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는 <본생담>에 나오는 욕망에

입장에서 보면 욕망의 대상은 물질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그것들은 아주 고귀하고 아담하고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 미혹한 사람들은 뒷생각을 하지 않은 채 대상을 향해 달려들게 되고 그 탓에 빠지면 마침내는 큰 괴로움을

따른 고통을 일깨워 주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일화에서는 사람이 욕망을 취하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을 일러주고 있다. 하나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조심이고 또 하나는 욕망을 누리고 있을 동안의 조심이다. 욕망을 쫓아가는

저칼이라는 짐승이 굶주린 배를 안고 숲 속에서 나와 먹이를 찾았다 니다가 강가에서 늙어 죽은 큰 꼬끼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재갈은 잘 되었다 싶어 꼬끼리 배, 등, 발, 귀, 꼬리 등을 물어뜯어 보았다. 하지만 살가죽이 워낙 거세고 딱딱해서 먹

먹고 쉬고 싶으면 쉬었다. 재갈은 이 세상에서 꼬끼리 뱃속보다 편안하고 풍족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재갈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 뜨거운 햇빛에 꼬끼리 가죽이 말라 들어갔고 향문도 오그라들었다.

내려 꼬끼리 가죽이 느슨해지고 향문 쪽에서 햇빛이 들어왔다. 재갈은 이제 살았다 싶어 꼬끼리 향문을 뚫고 뛰어나오려 했으나 비좁은 향문을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털이 빠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다시금 겪고 나서야 비로소 꼬끼리

따른 고통을 일깨워 주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일화에서는 사람이 욕망을 취하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을 일러주고 있다. 하나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조심이고 또 하나는 욕망을 누리고 있을 동안의 조심이다. 욕망을 쫓아가는

### ‘배보다 마음고픈 사람’ 더 많아

# 봉

##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 평화 성취

# 축

삼보에 귀의 하옵고,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우선정치 사람존중사회”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나라당불자 국회의원 : 하순봉, 김진재, 강신성일,  
김기배, 김영일, 김용갑,  
김용균, 김찬우, 김학송,  
도종이, 박헌기,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상배,  
이원형, 이인기, 이해봉,  
임진출, 전용원, 정문화,  
최돈웅,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외 불교신도회원> 일동